

타이타닉호, 삼풍백화점과 세계무역센터

(외상 후 증후군)

1997년 20세기 폭스사에서 제작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타이타닉'이 세계의 극장가를 강타했다. 이 영화는 1912년 4월 영국 런던을 출발하여 뉴욕으로 처녀항해를 하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약 천 5백 명이 수장되어 버린 불행한 역사적 사건을 극화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할리우드 산(産) 블록버스터의 방대한 스케일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남녀 주연배우들의 열연 또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일각에서는 스토리의 전개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평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연인의 손을 꼭 붙잡고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의 열렬한 사랑 이야기는 침몰과 수장이라는 재앙과 대비되어 오히려 노력한 것 이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승화된 수작(秀作)이었다.

1995년 6월 29일 퇴근 무렵 5층 건물이 갑작스럽게 땅속으로 꺼져 버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다. 사망 5백 여 명, 부상 약 천 여 명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건물 붕괴 사고였다. 이 때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구조 작업과 식음을 전폐하고 발굴 작업에 몰두했던 자원 봉사자들, 수십 일간을 건물 더미 속에서 썩은 물을 마셔 가며 마침내 생존해 낸 젊은이들의 무용담은 온 국민과 세계인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해튼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 요원들에 의한 여객기 테러로 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되어 약 3천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온 세계가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영화화 된 후 강한 '러브스토리'의 이미지로 변신한 타이타닉 호 침몰 사건이나 갑작스럽게 세계인을 충격 속에 몰아넣고 한국인의 안전 불감증을 만천하에 공표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일 이라크 전쟁으로 번져 더욱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가게 되는 뉴욕 무역센터빌딩의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삶은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

커다란 사고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고로 사망에 이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대가를 치

른다. 이른바 생존의 대가로서의 징벌(懲罰)인 외상 후 증후군이 그것이다.

그들은 처음 생존의 환희에 정말 몸서리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것은 이제껏 맛보지 못한 경이로운 세상의 느낌일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생존의 환희는 사실 잠시 동안에 그칠 뿐이다. 오히려 그 후에는 커다란 심리적 외상(外傷)으로 ‘오히려 죽은 사람만 못 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그들에게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연되는 매우 불쾌하고 놀라운 증상이 뒤따라온다. 사고가 재연되는 악몽이 반복되고 그 때문에 심각한 수면장애에 빠진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 경험했던 두려움, 긴장, 자포자기의 심정 등이 반복되면서 신경이 몹시 날카롭게 변화되어 간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차라리 그 때 죽어버린 것만 못하다”는 비탄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점점 더 커져간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부적절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충동을 조절 못하는 일이 잦아진다. “지금 죽어도 그만 아니냐!”는 타락한 심리 상태에서 아무에게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폭력을 쓰기도 한다. 웃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이유를 자기도 설명할 수 없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반응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도 계속되어 생존 이후의 사회 적응을 매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계속 극복되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일도 흔히 생긴다.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 지하 갱에 약 이십 여 일 동안 매몰되어 온 국민의 관심과 대통령의 특별 배려로 구조된 후 덤으로 자신의 진짜 성(姓)을 찾기도 했다는 광부 양창선씨가 당시에 자신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격려금과 은전을 받고도 몇 년 뒤 알코올 중독자로 변했다던 일이 있다. 일부 신문 기사에서 그를 “갑자기 큰돈이 생기고 편해지니 정신 못 차리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을 본 일이 있다.

우리는 그가 사고 전에 어떠한 인격과 생활의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 한다. 그렇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단순히 사고 후 그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비판만을 가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고 본다. 온 국민이 그를 지옥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영웅 취급을 하고 육체적인 건강과 평생 먹고 살만 한 돈은 주었지만,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自我)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상 후 증후군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사고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큰 사고를 경험한 후 그 현장을 극복하고 나온 생존자들은 사망자들의 짧은 죽음에 비해 긴 죽음의 체험을 반복해 가며 힘들게 생존해 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